

www.sungmuncare.or.kr



연화향

2018. Autumn. Volume 14.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성문노인전문요양원



CONTENTS



04_ 성문소식通

05_ Zoom In 1. #치매전담실#반야실#이모저모

06_ Zoom In 2. 어버이날 행사 사랑해 孝

07_ Follow Up. 우리는 성문 '프벤저스'

10_ People In. 치매전담실 '우등생' 양애자 어르신

12_ 나눔의 현장에서. 관음동 인기男 함민영 미용봉사자

14_ 요양원 사람들. 의료지원팀 "그대들이 있어 든든해요"

16_ 차이나는 케어 클래스 1. [의료지원팀] D.H.A. 간호

17_ 차이나는 케어 클래스 2. [영양팀] V.I.P. 영양케어

18_ 2018. 상반기 결산내역

19_ 성문가이드

연화향
Volume 14.

발행처 성문노인전문요양원
등록번호 제419-2008-00005
홈페이지 www.sungmuncare.or.kr

발행일 2018년 8월 발행인 김소지 편집인 복지사업팀
주소 강원도 원주시 고문골길 77-6(행구동)
이메일 wjsm9179@naver.com 전화 033)745-9179 팩스 033)745-9180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며늘아가, 잘 지내고 있니?
나는 잘 지내고 있단다.
이곳은 시원한 바람도 불고 좋구나.

이렇게 좋은 계절이 되면 며늘아기 네가 떠오르더구나.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보고 싶구나.

네가 바쁜 줄 알지만 이렇게나마 보고픈 마음을 전한다.
나는 잘 지낼테니, 너도 건강 잘 챙기고 있거라.
사랑한다. 아가.

시애미가

이 편지는 <좋은 Day>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이OO어르신께서 며느님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상반기 주요소식



치악골춤예술단

3월 15일, 첫 방문을 시작으로 홀수 달 셋째 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는 치악골춤예술단입니다. 공연 내용이 매번 매우 다채롭습니다.



건보 토론회 사례 발표

4월 13일,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주관한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 토론회>에서 치매전담실 운영 사례를 발표하고,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신나는 예술 여행

5월 2일, 공연단 '단미'와 함께 각 지역 전통민요/한국무용 등 우리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신나는 예술 여행>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5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주관한 <2018. 장기요양급여제공평가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맞이 홍보활동

5월 22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성문사를 찾은 원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합장주·연등 만들기, 흠뻑기·물레돌리기 등의 도예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6.13 지방선거 거소투표

6월 5일,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를 진행했습니다. 1층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신 어르신들이 아주 뿌듯해하셨습니다.



파코리하 우쿨렐레 공연

"저희 할머니께도 들려드리고 싶어요." 6월 7일, 성문에 할머니를 모신 손녀분의 제안으로 마련된 우쿨렐레 공연! 편안한 음식이 너무 좋았습니다.



영광교회 하모니카 공연

6월 14일, 행구동 영광교회에서 방문하셔서 하모니카 공연을 해주셨습니다. 익숙한 하모니카 소리에 맞춰 노래 부르니, 추억이 아련히 떠올랐습니다.

#치매전담실 #반야실 #이모저모



힘뇌체조

매일 오전 10시면 어김없이 <힘뇌체조>를 시작합니다. 영상을 보며 따라 하다보면 어느 새 몸에 온기가 느껴진답니다. 이젠 어르신들이 먼저 하자세요.



계절나무 만들기

봄이 오면 개나리와 진달래를, 여름이 오면 푸른 잎을, 가을이 오면 은행잎을, 겨울이 오면 눈 쌓인 나무를 함께 만들며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어화동동

올해는 <어화동동>을 반야실 어르신들과 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성무유치원 원아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한 시간이 금세 가요.



음악활동

어르신들에게 익숙한 곡에 맞춰 노래 부르기, 악기연주, 손유희 등의 활동을 골고루 하는 음악활동 시간!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시간입니다.



텃밭 가꾸기

봄이면 상추, 토마토, 고추 등을 심습니다. 여름이면 수확하고, 그 자리에는 다시 깻모를 심습니다. 작은 밭이지만 땅을 일구는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몸으로 말해요

앞에 나온 어르신이 몸동작으로 설명하면, 앉아계신 어르신들이 정답을 맞춰보는 활동입니다. 잘 관찰하고, 서로 교감하는 것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숨은 그림 찾기

숨은 그림을 찾으려면 일단 찾아야하는 대상에 대한 인식과 방향변화에 대한 인지가 잘 되어야 하고, 집중력도 좋아야 해요. 근데 무엇보다 재미있어요.



추억의 실뜨기

여가시간에 어릴 적 많이 하고 놀았던 실뜨기를 해보았습니다. 여자어르신들은 눈 감고도 하실 정도로 잘 하셨어요. 몸이 기억한다는 건 바로 이런 것이겠죠?



모의시장

한 달을 정산하는 날입니다. 한달 간 프로그램 참여시마다 받은 스티커로 전이며, 과자, 음료 등을 사드시는 날인데요. 막걸리의 인기가 단연 최고입니다.



어버이날 행사 사랑해 孝

“아니 이게 다 뭐래? 사람도 많고, 오늘 진짜 뭘 날이야?” 요양원 앞마당 가득 울려 퍼지는 음악소리에 가슴이 쿵닥 거린다는 한 어르신께서는 설레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십니다. 때마침 눈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는 자식들을 발견하시고는 입꼬리가 귀에 걸리십니다.

“아이고 내 새끼~ 바쁜데 어찌 왔어?”
 “엄마도 참~ 누가 보면 이산가족인 줄 알겠네. 나 어제도 왔었잖아.”
 딸내미의 핀잔에도 어르신의 얼굴에는 반가움이 가시지를 않는다.

가족들 간의 인사가 정신없이 이어지는 듯하더니, 곧 <어버이날 행사>의 막이 올랐다. <어머님 은혜> 제창 - 카네이션 전달, 이후 이어진 편지낭송 시간. 시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죄송하다’며 며느리가 올린 편지를 들으며 그 자리의 모두는 눈시울이 붉혔고, 딸들에게 ‘사랑한다고, 내 걱정은 말라’며 떠듬떠듬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어르신의 목소리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곧이어 시작된 한국연예인협회의 공연 덕분에 분위기는 급반전 되었다. 멀리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인천 등에서 오신 분들이 노래며 춤, 각설이타령 등을 선보여주셨다.

흥겨운 무대를 연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시는 분, 스스로 나가 공연단과 섞여 춤을 추시는 분, 피곤하면 모시겠다는 직원에게 “오늘 하루뿐인데 어때?”라며 오히려 여유 있는 말씀을 하시는 분 등, 한 분 한 분의 표정이 모두 밝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햇살이 따스해 좋았고, 마음을 내어준 공연단이 있어 즐거웠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 행복했던 날, 5월 10일. ‘함께’라 더할 나위 없었던 날이었다.



직전호에서 성문 사회복지사 3인의 이름을 걸고 진행하는 '성문 프벤저스'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녀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봐요.

김은영 복지사의 **음악회상 프로그램**

'그 노래를 기억하세요?'



▶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대상자들 중 의사소통이 안 되시는 분들, 대화가 가능하심에도 의사소통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생각보다 반응을 도출해내기 어려워요. 또,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어르신들'에게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다 보니, 대상자 한 분 한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어요. 서비스의 '양과 질'에 대한 고민이 들어 얼마 전에는 관련 교육도 듣고 왔는데, 수학처럼 딱 떨어지는 정답이란 게 없으니 어려운 면이 있어요.

▶ 긍정적인 반응 사례나 보람을 느꼈을 때가 있었나요?

평상 시 거의 반응이 없는 분이 계세요. 어찌다 한 번 씨익 웃어주시는 박○○ 어르신. 근데 그 '어찌다 보여주시는 그 웃음'이 전 너무 좋아요. 또, 음악을 들려드리면 손으로 악수를 청하시거나 본인의 간식을 먹으라며 내어주시는 어르신들도 계세요. 나름 '잘 들었다', '고맙웠다'는 표현을 하시는 거지요.

▶ 가장 기억에 남는 회기를 소개해 주신다면?

어르신들이 청년기 때 들으셨을만한 노래들을 선곡해 들려드렸을 때 반응이 매우 좋았어요. 웃고, 박수치고…… 아마 인생의 가장 빛나던 시기를 떠올리지 않으셨을까 생각해요.

▶ 프로그램과 관련해 향후 계획이 있나요?

음악이 인간의 의식이나 무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음악을 활용한 회상프로그램은 치매어르신들에게는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지요. '회상요법'이라는 취지에 맞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대상자들과는 한 곡 한 곡마다 심층적 대화를 나누는 방법으로 진행해볼까 해요.



한소라 복지사의 우울감 타파 프로그램

‘좋은 Day’

▶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대상자들이 우울감이 있거나 치매로 인해 무감동/무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라 참여를 이끌고 호응을 유도하는 과정이 힘들어요. 그룹형 프로그램이라고는 하나 사실상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일일이 프로그램 취지나 방법을 설명하고,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나름 요양원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기획-진행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공을 많이 들이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해요.

▶ 긍정적인 반응 사례나 보람을 느꼈을 때가 있었나요?

오○○ 어르신이라고 사실상 예전에는 모든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셨었어요. 사례관리와 함께 이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며 행동변화를 꾀했는데, 요즘은 거부 없이 모두 참여하세요. 변화가 확실히 보이니 정말 보람을 느끼지요.

또, 유○○ 어르신의 경우, 감정조절이 안 돼 폭력적인 언행을 자주 보이셨는데, 최근에는 많이 부드러워지시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시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자주 접할 수 있어요. 어르신의 변화에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프로그램의 역할 또한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 가장 기억에 남는 회기를 소개해 주신다면?

상반기에는 생애주기에 따른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그 중 ‘결혼-출산-육아’로 이어지는 회기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결혼’은 전통혼례복을 입고 혼례 하던 날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출산’은 직접 금줄을 만들어 보는 것으로, ‘육아’는 아기 인형에게 젖병을 물리고 기저귀를 가는 콘텐츠를 넣어 진행했는데, 다른 프로그램 때와는 달리 어르신들의 반응이 매우 명확했어요. 그 시기가 어르신들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깊이 각인되어 있는 때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 프로그램과 관련해 향후 계획이 있나요?

하반기에는 ‘희노애락’을 주제로 <감정>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자 해요. 치매와 우울로 반응이 결여되어 계신 어르신들께서 조금이나마 스스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볼 예정입니다.



김미주 복지사의 청각중심의 다감각 자극 프로그램

‘청각의 마음화’



▶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표정변화가 거의 없는 중증와상어르신들이 대상자인데, 처음에는 어르신들과의 눈맞춤부터가 어려웠어요. 눈빛을 못 읽으니 당연히 어르신들의 감정을 읽기가 힘들었지요. 또, ‘나름 힘들게 내신 음성일텐데.....’라는 생각에 ‘응얼거림’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에 죄책감까지 들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 단계는 지났습니다.

▶ 긍정적인 반응 사례나 보람을 느꼈을 때가 있었나요?

전○○ 어르신이 처음에는 눈을 계속 피하고 당신 손으로 제 손을 쳐내셨지요. 하지만 최근에는 눈을 마주쳐도 피하지 않고, 보여드리는 것 들려드리는 것 모두 잘 참여하세요. 한 번은 몹시 더운 날 아이스팩에 대 차갑게 한 손으로 이마를 짚어드리니 “아이 차가와!”라고 또렷이 말씀하셨어요. 그 때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걸 처음 들었어요. 프로그램 시작 반 년만이었지요. 언어능력이 상실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터라 더 없이 놀랍고 반가웠던 기억이 나요.

▶ 가장 기억에 남는 회기를 소개해 주신다면?

봄에 벚꽃이며 개나리 가지를 꺾어 어르신들에게 보여드리고, 손에 쥐어드렸을 때예요. 많은 어르신들이 미소를 지으며 꽃에서 눈을 떼지 못하셨고, 손의 움직임이 가능하신 분들은 꽃송이를 조심스레 어루만지셨지요. 꽃을 바라보는 어르신들의 눈빛이 아련한 듯 편해보였기에 기억에 많이 남아요.

▶ 프로그램과 관련해 향후 계획이 있나요?

연초 계획서 작성 시 선정했던 대상자의 40%가 변경되었어요. 대상자 변경사유는 안타깝게도 어르신들이 돌아가셔서고요. 엇그제 함께 프로그램 한 어르신이 오늘 돌아가셨을 때 느꼈던 감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때 어르신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15분, 20분..... 삶이 영원하다고 믿을 때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아주 귀한 시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지요. 매회기 이걸 항상 잊지 않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계획이에요.



치매전담실 '우등생' 양애자 어르신

아주 재미가 들렸어. 난 학교도 못 다녔는데, 여기서 아침·저녁으로 맨날 배우니까 좋아.

내 고향은 철원이야. 6.25때 피난을 나왔지. 이후 원주에 자리 잡고 결혼하고 자식들 낳고 평생을 살았어. 나 살던 곳은 여기 같은 강원도 땅인데, 휴전선에 가로막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그렇게 나이가 들어, 이 날 이때가 되었네.

내가 어느 날 어디서 어떻게 정신을 놓은건지 하나도 기억이 안나. 여기 들어오기 전에 다른 요양원에서도 있었는데, 그 때의 기억도 거의 없

고..... 이쪽으로 올 때 기억도 하나도 없어. 까무룩하게 늘어져 있는 걸 자식들이 이쪽으로 옮겼다는데, 그 땐 정말 죽었었던 모양이야. 죽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지.

지금은 애들이 제일 좋아해. 엄마가 마냥 누워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와서 보면 막 걸어 다니니까. 여기 온 직후에 간호팀장이 내 건강기록을 보다가 갑상선인가 뭔가 중요한 약이 빠져있는

걸 발견하고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해줬어. 약 한동안 먹고 나니 기력을 조금씩 되찾았지. 처음에는 남이 앉혀줘야 휠체어 타고 겨우 나왔어. 그 후 한동안 물리치료실에서 운동해서 보행기 끌고 걸을 수 있게 되었지. 이후 스스로 열심히 운동해서 지금은 보행기 없이도 버쩍버쩍 걸어.

지금은 익숙해졌지만, 여기 직원들도 볼 때마다 놀랍다고 했었어. 보통 노인들이 기력이 좋아지는 경우가 드문데, 송장처럼 누워 들어왔던 사람이 걷는 것도 잘 걷고, 어지간한 일은 스스로 다 하게 되었으니 말야. 특히 둘째딸은 일본에 살아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들어오는데, 7월엔가 와서 보고 어찌나 놀라던지. 너무 좋아하더라고.

여기 들어와서 처음에는 2층에 살았는데, 3층에 치매전담실이 생기면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어. 매일 오전 10시에는 체조하고, 체조 끝나고 밥 먹기 전까지 비는 시간에 옛 드라마나 영화같은

것을 보여주는데 다 재밌어. 오후에는 사회복지 사랑 맨날맨날 뭘 해. 요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게임도 하고, 공연도 보고. 하루도 안 빠고 공부하는데, 나름 바빠. 그래도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만 가면 되니까 그리 어려운 것은 없어. 무엇보다 재밌어. 새로운 걸 배우는 재미가 이리 좋은지 새삼스러울 지경이라니까.

여기 치매전담실에는 열두 명이 사는데, 평생을 따로 살던 사람들이 모여 살다보니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어. 하지만 그러려니 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가며 살려고 다들 노력하지.

난 말야. 여기에 있을 수 있는 날까지 있을거야. 오죽하면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있으면 여기로 데리고 왔으면 하는 생각도 해본다니까. 무엇보다 자식들 걱정 덜어준 것이 좋아. 내가 건강해야 애들도 마음 편히 사회생활하고 가정 돌보지 않겠어. 안 그래? 그게 건강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



관음동 인기男
‘함민영 선생님’



“어르신들~ 오늘 미용봉사 선생님 오시는 날이에요?”

“아, 그 남자 선생님 오는 거 맞지? 어여 나가 줄서야겠네.”

함민영 선생님이 오시는 날 아침이면 으레 오가는 대화이다.

함민영 선생님은 여자 어르신들만 생활하시는 관음동에서 2년째 미용봉사를 해오고 계신다. 올 초 새로 오픈한 개인샵 운영에 대학원 공부까지 겸하는 바쁜 와중에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요양원을 찾아주시는 선생님은 어르신들에게 항상 인기 만점이다.

“멋을 생각하면서 잘라주는 것 같아. 주책 같겠지만, 다 늙었어도 예쁘다 그러면 솔직히 좋아.”

“장소만 여기다 뿐이지, 미용실에 가서 자르는 것 같아. 한명 한명한테 정성을 쏟는 게 눈에 보여.”

“그저 감사할 따름이지. 나도 장사를 해봤지만, 자기 시간 내서 꾸준히 온다는 게 힘들거든.”

“2년째 보는데 사람이 진국이야. 진중하고, 예의 바르고, 머리도 잘 자르고.”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어르신들에게 미용봉사 선생님에 대해 여쭙니 이리 칭찬일색이다.

그렇다면 함민영 선생님께는 봉사가 어떤 의미일까?

“봉사하면서 보람도 보람인데,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한 번은 어르신들이 돈 못 줘서 미안하다고 계속 말씀하시길래, ‘다음에 사탕 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갈 때마다 매번 사탕을 주세요. 정겹기도 하고, (실례지만) 귀여우시기도 하고 그래요.”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일은 있다. 다만,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만 있을 뿐, ‘행동’으로 실천하기 쉽지 않은 것이 보통의 우리네들이다. 함민영 선생님의 ‘행동’이 더 멋진 이유이다. 그리고 함민영 선생님도 잘 알고 계신다. 주머니에 꼭꼭 쥘어두었던 사탕은 ‘그저 사탕’이 아니라는 것을.



“그대들이 있어 든든해요”



의외였다.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세요?” 라는 나의 질문에 모든 팀원들에게서 “어르신을 살렸을 때요”라는 대답이 나올 줄 알았다. 그런데 한 팀원에게서 “저는 어르신이 돌아가시는 순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게 해드렸을 때요. 임종징후가 보이는 어르신을 제 때 병원에 모셔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 감으시게 했을 때 보람을 느꼈어요.”라는 답이 나왔다.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생과 사의 접점. ‘그 순간을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었지, 나에게도 그 순간은 꽤나 중요할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이들은 요양원을 인생의 마지막에 거쳐가는 곳이라고 한다. 그 말도 전혀 틀린 말도 아닌 것이 보통 병원에서도 더 이상의 치료나 재활이 필요 없다고 한 중증어르신들이나, 현실적인 문제로 가족과 함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오시는 곳이 바로 요양원이기 때문이다. 하나뿐인 어머니, 아버지를 꽤 오래 고민하고 갈등해가며 모신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의료지원팀에 기대되는 역할은 매우 크다.

한 보호자께서는 “요양원에서 전화가 오면 놀라. 혹시나 우리 어머니 어찌되셨나 하고……”라는 말씀들을 종종하시는데, 항상 노심초사하고 계시다는 뜻이리라. 우리 요양원 다섯 개 팀 중 가족들이 ‘노심초사하는 바로 그 부분’에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팀이 바로 의료지원팀이다. 그만큼 어려움이 많은 곳이다.

“어르신들의 경우 낮에 멀쩡히 박수치며 프로그램 참여하시고, 밤에 응급실 가시는 경우도 흔하시고요. 저녁식사 다하시고 갑자기 의식이 떨어져 응급실로 모시니 임종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위중한데 가족들과 연락이 안 닿을 때가 가장 힘들지요.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고령의 어르신들은 만성질환을 보통 서너 가지 갖고 계시다보니, 건강한 성인이 아픈 것과 달리 변수가 워낙 많아 보호자님들의 기대를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지요. 때로는 감정이 앞서 날이 선 이야기를 하시는 보호자님들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누군가의 자식이니깐요. 무엇보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매우 잘 협조해주고 계세요. 아마도 어르신들이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은 가족들이나 저희나 같기 때문이겠지요?”

팀원들과의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 나이팅게일 선서의 마지막 구절이 떠오른다.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의료지원팀 직원들의 노고가 있기에 아흔다섯 성문 어르신들의 생활이 활기찰 수 있음을, 가족들의 일상이 편안할 수 있음을, 동료들이 안심할 수 있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D·H·A 간호]

의료지원팀



참치가 생각나신다고요? 아닙니다.

D.H.A. 간호란 성문 의료지원팀의 중점사업을 뜻하는 것으로, 입소 어르신들의 **Dementia** 관리 - **Healthy** 관리 - **Association care**의 약자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는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바로 성문 의료지원팀의 목표입니다.

<p>Dementia 관리 (치매 관리)</p>	<p>목적 : 치매 어르신들의 상태 및 증상을 정확히 평가 - 적절한 의료적 개입을 통해 치매의 진전을 지연시키고자 합니다.</p> <p>대상 :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p> <p>방법 : 전문의를 통한 연 2회 정기 치매검사 실시 적절한 처방을 통한 약물의 효과 극대화 및 오남용 방지</p>
<p>Healthy 관리 (건강한 관리)</p>	<p>목적 : '예방적 간호'라는 모토 아래, 정기 검진 및 사정을 통해 비정상적 소견을 관리 합니다.</p> <p>대상 : 전체 어르신</p> <p>방법 : 연 1회 혈액검사를 통한 전염성질환 관리 반기별 1회 건강수준 사정을 통한 개인별 간호 계획 수립 및 케어</p>
<p>Association care (유기적 케어)</p>	<p>목적 : 관계 의료기관 및 전문의들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전문적인 진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합니다.</p> <p>대상 : 전체 어르신</p> <p>방법 : 월 2회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촉탁의 진료 치과 및 정신과 전문의와의 연계성을 통한 폭넓은 진료 기회 제공 외래진료 전담 간호인력 배치를 통한 보호자 부담 완화</p>



[V·I·P 영양케어]

영양팀



어르신은 우리들의 'Very Important Person'이기에, 한 끼 한 끼 최선을 다합니다. V·I·P 케어란, 어르신들이 하루 세 번 받는 밥상에서부터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실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영양팀의 중점 사업입니다.

<p>V.(various) 다양성의 전문영양케어</p>	<p>목적 : 라운딩을 통해 어르신들의 만족도/기호도/영양섭취 상태 등을 파악 - 욕구를 최대한 반영한 급식을 제공하고, 건강 및 영양상태를 유지·호전시키고자 합니다.</p> <p>대상 : 전체 어르신</p> <p>방법 : 1일 1회 영양사 라운딩 실시 - 어르신별 특이사항 상시 체크</p>
<p>I.(individual) 개인의 기호영양케어</p>	<p>목적 : 단체급식에서 흔히 사용되는 식판이 아닌 반상기에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여드립니다.</p> <p>대상 : 전체 어르신</p> <p>방법 : 각각의 식기에 밥, 국, 반찬을 따로 담아 제공 개별이름표에 기호도를 기재하여 즉각적인 욕구 반영</p>
<p>P.(particular) 특별한 파티영양케어</p>	<p>목적 : 특별식 제공으로 치매어르신들에게 음식을 통한 기억회상을 도모하고, 야외 식사를 통해 기분전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p> <p>대상 : 전체 어르신</p> <p>방법 : 설날, 대보름, 단오, 복날, 추석, 동지 등에 맞는 특별식 제공 연 1회 야외 바비큐 파티를 통한 가족적 분위기 조성</p>



2018년 상반기 세입·세출 결산서 (단위:원)

2018. 01. 01. ~ 06. 30.

세입			세출		
예산과목	정산액		예산과목	정산액	
세입총계		1,363,450,850	세출총계		1,188,901,104
보조금	시군구보조금	23,359,270	사무비	인건비	922,140,763
	시도보조금	-		업무추진비	2,917,730
	소계	23,359,270		운영비	61,852,569
후원금	비지정후원금	30,615,110		소계	986,911,062
	지정후원금	1,000,000	재산조성비	시설비	36,697,172
	소계	31,615,110		소계	36,697,172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	-	사업비	운영비	153,695,890
	소계	-		사업비	9,400,660
이월금	이월금	78,444,221		전출금	소계
	이월후원금	10,335,117	전출금		-
	이월보조금	1,576	소계	-	
	소계	88,780,914	잡지출	잡지출	2,195,010
잡수입	불용품매각대	495,000		소계	2,195,010
	예금이자 수입	118,961	예비비	예비비	-
	기타잡수입	34,487,555		반환금	1,310
	소계	35,101,516		소계	1,310
입소자 부담금수입	본인부담금	147,555,400	적립금	운영충당적립금	-
	비급여	102,740,890		소계	-
	소계	250,296,290	준비금	환경개선준비금	-
요양급여 수입	장기요양급여	934,297,750		소계	-
	소계	934,297,750			

2018년 상반기 후원금 결산내역 (단위:원)

2018. 01. 01. ~ 06. 30.

구분	수입	지출내용		잔액
지정후원금	1,000,000	지정후원금	-	16,220,427
비지정후원금	30,615,110	비지정후원금	15,394,683	
전년도이월후원금	10,335,117	전년도이월후원금	10,335,117	
법인전입금(후원금)	-	법인전입금(후원금)	-	
합계	41,950,227	합계	25,729,800	

2018년 하반기 주요일정

월	어르신 및 보호자 참여 일정	직원 역량강화 및 주요 일정
7월		·치매예방 및 관리 교육
8월		·승강기 안전교육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 ·응급상황대응 및 관리교육
9월	·추석 행사/ 한가위배 놀이한마당 ·구충제 복용 ·수급자 영양교육(3차)	·하반기 소방안전교육 ·요양보호사 기생충 예방관리교육 ·노사협의회(3차) ·전직원 간담회(3차)
10월	·노인의 날 행사 '천태은빛축제' ·결핵 검사	·산업안전보건교육 ·전직원워크샵 ·성폭력예방교육
11월	·하반기 수급자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교육 ·수급자 영양교육(4차)	·요양보호사 뇌졸중 예방 및 관리교육 ·후원의 밤 '나눔으로 하나 된 인연'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교육
12월	·연말행사 '우리는 한 가족' ·하반기 보호자간담회	·운영규정 및 재정교육 ·하반기 재난대피훈련 ·노사협의회(4차) ·전직원 간담회(4차)

성문 서포터즈

후원안내

성문노인전문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에서운영하는 기관으로, 보내주시는 후원금과 후원품은 모두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후원계좌 | 예금주 : 성문노인전문요양원

기업은행 128-082332-01-022

기업은행 128-082332-01-143

※ 후원금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자원봉사 안내

성문에서 어르신들의 '행복 동반자'를 찾습니다.
넘치는 열정과 재능, 훈훈한 마음을 가진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밝은 미소로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해주실 분들은 바로 전화주세요 .

활동내용 | 케어봉사(나들이, 말벗, 식사보조, 생활동 청소 등)
전문봉사(의료봉사, 레크리에이션, 심리상담, 미술활동 등)
프로그램 진행보조, 행정업무 지원 등

신청방법 | 전화 (033)745-9179 홈페이지 www.sungmuncare.or.kr



어르신을 공경하겠습니다.
다하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성문노인전문요양원

